

베트남 남부 대표 커피숍, 1년간 고공성장!



▲ 옹버우 카페

자료 : kienlongbank.com

‘옹버우 (Ông bầu) 카페, 베트남을 넘어 세계로!

옹버우 카페는 지난 '20년 초 베트남 남부에 첫 런칭된 커피체인으로 현재 베트남 전국에 약 15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체인점은 세 명의 베트남의 유명기업 회장(황안자라이 그룹 Doan Nguyen Duc, 동맘주식회사 Vo Quoc Thang, 누티푸드 그룹의 Tran Thanh Hai)이 공동투자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브랜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20년 3월 켄터시(Can Tho), 롱안시(Long An), 띠엔장시(Tien Giang) 등에 16개 매장을 오픈하는 등 런칭 후 5개월 동안 150개의 매장을 오픈했다. 또한 베트남 남부를 넘어 베트남 전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2022년까지 동남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커피 체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마케팅 방식은?

가격은 낮게, 품질은 높게!

가격민감도가 높은 현지 소비자를 겨냥하여 일반 커피숍에 비해 평균 30~50% 저렴한 커피를 판매하는 것 또한 옹버우의 주요 판매전략 중 하나이다. 옹버우 커피는 잔당 16천동(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베트남의 유명 커피체인 하이랜드 커피는 29천동, 스타벅스는 55천동의 가격으로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Vietnam

호치민지사





▲ 직접 내린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Vo Quoc Thang

자료 : thitruongsi.com



▲ 미니 가판대 판매점



▲ 옹버우 카페의 내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옹버우 카페에서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는 옹버우의 공동대표 중 한명인 Tran Thanh Hai가 회장으로 부임해 있는 누티푸드그룹에서 구매한다. 이는 베트남의 대표 식품기업 중 하나로 자체 보유한 유기농 커피농장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옹버우의 이색 이벤트와 마케팅 방식

옹버우 카페는 이색적인 오픈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공동대표 3인이 카페에 방문해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였으며, 공동대표 중 Vo Quoc Thang 대표는 직접 내린 커피를 판매하는 등의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홍보하였다.

또한 해당 공동대표는 모두 베트남 유명 축구구단의 구단주로, 각 축구구단의 유명 축구선수를 매장에 초청하여 축구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펼쳤다.

또한 옹버우의 오토바이 운전자-테이크아웃 손님 등을 겨냥한 미니 가판대 판매점은 매장 설립비용 등 투자비용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마케팅 방식으로 여러 유명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더불어 판매되고 있는 커피 1건당 1천동을 저소득 청소년, 수재민 등에 후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Key Point

코로나19로 일부 주춤했던 현지의 외식업계 분위기와는 달리, 옹버우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1만동대에 판매하는 저렴한 가격정책으로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며 남부 전체에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매출 상승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축구선수 연계 마케팅 및 미니 가판대 판매점 설치, 후원 캠페인 실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하였는데 국내 기업 또한 베트남 진출 시 베트남인의 수요를 충족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